

【연구논문】

친절한 살인: 『레이첼』에서의 모성 포기 논란과 역설*

박정만

(한국외대)

I. 서론

1916년 3월 3일과 4일 양일간 워싱턴 시(Washington D.C.)에 소재한 미어틸라 마이너 사범학교(Myrtilla Miner Normal School)에서 안젤리나 그림케(Angelina Weld Grimké)의 극 『레이첼』(*Rachel*)이 초연되었다.¹⁾ 이 공연은 미국 연극사상 흑인 작가의 극이 흑인에 의해 청중 앞에 상연된 최초 사례로 여겨진다(Coss 12). 1900년대 미국 북부에 거주하는 중산층 흑인 가정의 이야기인 이 극은, 여주인공인 십대 흑인 소녀 레이첼(Rachel)이 흑인 아이들에게 가해지는 인종차별과 폭력의 잔인한 현실을 인식하고 결국 그녀가 열망하던 결혼과 모성을 포기하는 과정을 극화한

* 이 연구는 2018학년도 한국외국어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

1) 극이 초연된 사범학교는 교육자이자 노예폐지론자인 미어틸라 마이너(Myrtilla Miner, 1815-1864)에 의해 흑인 여성 교사를 양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1851년에 설립되었다. 1929년에는 사범대학(teachers college)으로 인가받았으며, 1950년대까지 흑인 학교 체계 발전과 흑인 교사 양성에 독보적인 역할을 했다. 학교 건물은 1991년 국가유적지로 등록되었다. 극은 이듬해인 1917년 4월 25일 뉴욕시의 네이버후드 극장(Neighborhood Playhouse)에서, 같은 해 5월 24일에는 매사추세츠 주 캠프리지의 브래틀 홀(Brattle Hall)에서 다시 공연되었고, 2019년 출판되었다.

다. 주목할 것은 이 극의 초연이 전미흑인지위향상협회(National Association for the Advancement of Colored People, 이후 NAACP)의 기획과 재정적 후원으로 성사된 점이다(Kellogg 145). 1909년 NAACP의 설립은 노예해방 선언(Emancipation Proclamation, 1863) 이후에도 반세기 넘게 지속된 인종차별에 대한 흑인 사회의 저항을 본격화하는 시발점이 되었고, 이후 1920년대 할렘르네상스 및 ‘뉴니그로’(New Negro) 운동으로 이어지는 흑인의 문화적·정치적 각성 노력의 초석이 되었다. 시대적 맥락을 감안할 때, 상기한 연극사적 의의에 덧붙여 『레이첼』의 초연은 NAACP가 목적인 반인종차별 운동의 일환이었다는 점에서 미국 흑인 인권운동사에서 갖는 의미가 크다 하겠다.

『레이첼』은 초연 직전 해에 출시되어 백인우월주의 프로파간다 영화로 ‘악명’을 떨친 그리피스(D. W. Griffith)의 『국가의 탄생』(*The Birth of a Nation*, 1915)에 대한 흑인 사회의 응답으로 여겨졌다. 우선 이 극은 영화가 재현하는 흑인 스테레오타입에 대한 흑인 “중산층 가정의 응답”(middle-class response)을 대변한다(Hatch 34). 극이 제시하는 “교양 있고 점잖은 흑인들”(educated, genteel African American)과 그들의 “돈독하고 격조 높은 가족과 공동체”(tight-knit and highly valued familial and community structures)는 영화에서 “백인 주인을 잃고 방치된 자유민”(freed slave, lost without his/her white master)으로 그려지는 흑인들의 모습에 정면으로 반한다(Meier 136). 『레이첼』은 특히 영화가 찬동하고 정당화하는 백인의 ‘린칭’(lynching)에 대한 흑인 사회의 우려를 개진한다. 영화에서 흑인들을 향한 린칭 광경들은 미국을 “컬러라인”(color line)으로 통합하는 “국가적 행사”(national event)로 제시되는데, 이 과정에서 린칭은 단순히 폭력 행위가 아니라 “인종적 연대를 통한 지역 화합의 내러티브”(a narrative of regional reconciliation through racial solidarity)를 개진하는 “의식”(ritual)으로 미화되었다(Davis 478). 이 영화에 대해 흑인 사회는 물론 흑인에게 우호적인 백인 지식인들조차 민감

하게 반응했다. 일례로, 흑인교육기금을 운영하는 등 흑인의 교육을 적극 지지했던 백인 제임스 딜라드(James H. Dillard, 1856-1940)는 “이 저주 받을 영화보다 더 힘든 상황은 없다”(There is no situation in the world harder to deal with than this of the damnable film)며 당혹감을 표출했다(Fleener 400).

기실 미국 사회에서 흑인에 대한 린칭은 1880년대부터 1930년대에 걸쳐 공개적으로 혹은 은밀한 방식으로 빈번하게 자행되었다. 동시에 이는 “공공연한 비밀”(open secret)로 유지된 관행이었기에 공식 문서로 기록되는 일이 거의 없었고, 그 결과 이 시기에 행해진 린칭의 횟수는 정확히 알려진 바가 없다(Jackson 102).²⁾ 이런 점을 감안할 때, 백인의 흑인 린칭을 정면으로 조명하는 『레이첼』은 이 공공연한 비밀의 실체가 흑인의 기억과 문학을 통해 기록되고 있음을 증명하는 의미심장한 ‘사건’이었다. 『레이첼』 이후 다양한 문학 장르에서 린칭에 대한 항변을 표출했는데, 클라우드 맥케이(Claude McKay)의 시 「린칭」(“The Lynching” 1922), 아벨 미로폴(Abel Meeropol)의 시와 노래 「이상한 열매」(“Strange Fruit” 1937), 릴리언 스미스(Lillian Smith)의 동명 소설과 극 『이상한 열매』(Strange Fruit, 1944) 등이 대표적인 예다.³⁾ 주디스 스테프스(Judith Stephens)는 린칭 이슈가 당대 흑인 드라

2) 후대의 자료 집계와 통계치를 통해 당시 흑인 린칭의 빈도와 규모를 짐작할 수 있다. 일례로, 1882년에서 1927년 사이에 린칭을 당한 흑인의 수는 3,580여명으로 추정되며 이 중 76명이 여성이었다(Perkins 9). 특히 20세기의 첫 십 년인 1900년에서 1909년 사이에는 나홀로 한 명 꼴로 린칭의 희생자가 발생했으며, 10명 중 9명이 흑인이었다(Williamson 117-118).

3) 클라우드 맥케이(1889-1948)의 시 「린칭」은 나무에 매달린 흑인의 시체에 대한 암울한 묘사를 통해 폭력을 행하고 묵인하는 인간의 잔인함을 폭로한다. 자마이가 태생인 그는 1912년 미국에 정착해 시집 『할렘 그림자를 드리우다』(Harlem Shadows, 1922) 출간 등으로 할렘 르네상스를 풍미했다. “당대 최고의 흑인 좌파 지식인”(the foremost left-wing black intellectual of his age, Pendergast 327)으로 여겨지는 그는 볼드윈(James Baldwin)과 라이트(Richard Wright)를 위시한 흑인 작가들에게 영향을 미쳤다. 아벨 미어로폴(1903-1986)은 러시아계 유대인 이민자 집안에서 태어난 뉴욕 출신 작곡가로, 그가 작사·작곡한 「이상한 열매」는 블루스 가수 빌리 홀리데이(Billy Holiday)가 불러 유명해졌다. 홀리데이는 흑인들의 시체가 나무에 매달린

마의 주된 주제였음을 지적하면서 1916년을 이러한 시도의 시작점으로 특정하고 있다(330). 이 연도가 다름 아닌 『레이첼』의 집필·공연 시점임을 감안할 때, 스테프스의 지적은 ‘반린칭’(anti-lynching) 문학 계보의 시작을 알리는 작품으로서 『레이첼』의 문학사적 위치와 의의를 재확인한다.

『레이첼』에 대한 당대 흑인 사회의 반응은 다양했다. NAACP는 초연 당시 프로그램에서 이 극이 1천만 흑인들의 개탄스런 상황을 고발하기 위한 목적으로 “인종 프로파간다 무대를 사용한 최초의 시도”(the first attempt to use the stage for race propaganda)라고 소개했다(Hull 117 재인용). 할렘르네상스와 뉴니그로 운동을 주도한 로크(Alain Locke)와 그레고리(Montgomery Gregory)는 이 극을 “흑인이 쓰고 흑인 배우가 연기한 최초의 성공적 드라마”(the first successful drama written by a Negro and interpreted by Negro actors)라 평가했다(414). 『레이첼』의 공연은 흑인 사회 내부에서조차 논란을 야기했다. 상당수는 이 극이 “너무 선동적”(too propagandistic)이고 “지나치게 정치적”(too political)이라 비판했고(McKay 133), 일부는 여주인공이 결혼을 포기하는 선택에 대해 “인종 학살”(racial genocide)을 비호하는 것이라 비난했다(Perkins 8-9). 흑인 여류문인 제시 퍼시트(Jessie Fauset)는 이 극이 프로파간다로서는

모습을 전하는 내용에 대해 처음에는 민감하게 반응했으나, “나는 린칭을 혐오하고, 불의를 혐오하며, 이것을 영속시키는 자들을 혐오한다”(I hate lynching, and I hate injustice, and I hate the people who perpetuate it)는 미어폴의 작곡 취지를 듣고 음반 녹음을 결심했다는 일화가 있다(Baker 53). 릴리언 스미스(1897-1966)는 인종과 양성 평등을 지지하는 “가장 진보적이고 솔직한 남부 백인 작가 중 한 사람”(one of the most liberal and outspoken of white southern writers)으로 알려졌다(Brantly 47). 흑백 남녀의 ‘금지된’ 로맨스를 다루는 그녀의 소설 『이상한 열매』는 출간 당시 큰 반향을 일으키며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같은 해에 극으로 각색되어 브로드웨이에서 공연되었다. 작품 제목이 “인종차별적 문화의 산물”(the products or results of our racist culture)인 “상처받고 뒤틀린 사람들”(the damaged, twisted people)을 의미한다고 작가 스스로 밝히듯(Gladney 71), 이 소설은 “인종 차별과 백인우월주의가 백인에게 가하는 해악”(the harm segregation and the notion of white superiority did to whites)에 천착하는 작가의 인종적 편견에 대한 차별적 접근법을 제시한다(Perkins 222).

미진하나 “통렬한”(searching) 필치와 “슬픔의 심연”(dept of sad dreariness)으로 침잠하는 극 전개는 입센의 사실주의에 비견된다(Fauset 64)고 격찬하면서, 흑인 문학의 질적 성장에 대한 증거로서 이 극의 의미를 가늠했다.

한편 『레이첼』을 관통하는, 기실 가장 부각되는 또 다른 화두는 ‘모성’(motherhood)이다. 살펴본 것처럼, 『레이첼』에 대한 당대의 반응과 평가는 천편일률적으로 린칭 및 인종 이슈와 관련된 ‘정치적’ 의미 해석에 국한되었다. 결과적으로 극에서 작가가 심도 있게 개진하는 모성 주제는 상기한 정치적 의미 해석에 가려져 전혀 주목받지 못했고 실제로 당비비평가들은 이에 관한 일체의 언급이 없었다. 이와 관련하여 미셸 헤스터(Michelle Hester)는 “인종 프로파간다”(race propaganda)와 “인종 분석”(race analysis)에 치중하는 것만으로 이 극의 의미에 온당하게 접근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250). 헤스터의 입장을 지지하면서, 본 연구는 『레이첼』의 극을 관통하는 핵심 주제로서 모성에 대한 본격적 논의를 시도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극의 결말부에서 레이첼이 현실의 모성을 포기하는 명분으로 제시한 ‘친절한 살인’(kindness to kill)의 의미를 밝히고, 이러한 맥락에서 레이첼의 모성 포기는 역설적으로 그녀가 염원했던 이상적 모성을 현실에서 구현하기 위한 결단이었음을 결론으로 제시한다.

II. 이상화된 모성: 가시적·상징적 표상들

『레이첼』은 3막 극으로, 흑인 중산층 러빙 일가(The Lovings)의 이야기를 다룬다. 십년 전 남편과 사별한 러빙 부인(Mrs. Loving)은 재봉일로 생계를 잇고 자녀를 건사하는 헌신적인 여성이다. 아들 톰(Tom)은 전기수리공으로 성실히 일하며 특유의 유머로 집안에 활력을 북돋는 건실한

청년이다. 대학을 갓 졸업한 레이첼(Rachel)은 아직 직장은 없으나 집안 일을 하며 틈틈이 어머니의 재봉일을 돕는 사려 깊은 딸이다. 전체적으로 일가는 넉넉지 않은 형편과 인종차별 등 흑인에게 불리한 사회적 여건 속에서 절제되고 경건한 생활을 유지하는 가운데 삶에 대한 신념을 잃지 않는 모습이다. 이러한 가풍의 구심점은 무대에 가장 먼저 등장하는 러빙 부인으로, 자녀들에게 “노력을 경주하고 신념을 잃지 말 것”(you'll try—not to lose faith. 42)을 늘 당부하는 그녀의 모습에서 이러한 점이 잘 드러난다.

극은 러빙 일가의 실내를 공간적 배경으로 하는데, 무세 세트는 상기한 일가의 가풍을 가시화하는 장치 혹은 상징물을 다수 포함한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실내에 만연한 녹색과 백색의 색상 대비인데, 이 중 지배적인 색상은 녹색이다. 백색이 창틀 등 목조부(woodwork)나 굽도리널(baseboard)에만 한정적으로 사용된 반면, 녹색은 집안 벽에 전체적으로 적용된다. 백색 커튼은 양쪽으로 최대한 젖혀져 세로 형태의 목조부 역할을 하는 반면, 녹색 차일은 가로로 창문을 막고 있어 더 큰 무게감을 준다. 거실 바닥 양탄자도 녹색이고, 집안의 중심에 자리한 식탁 역시 녹색 보로 덮여있으며, 팔걸이의자의 덮개장식 역시 녹색이다.

벽은 녹색으로 칠해졌고, 목조부는 백색이다. [...] 특별한 장식 없는 녹색 벽과 백색 굽도리널이 눈에 보이는 전부이다. [...] 거실 뒷벽 중앙부에 창문이 나 있고 닫혀진 상태다. 백색 샷시 커튼이 양쪽으로 최대한 젖혀져 있다. 녹색 차일은 위쪽으로 끝까지 말려져 있다. [...] 바닥 중앙에 녹색 깔개가 있고, 깔개 중심부에 장방형 식탁이 긴 면을 정면으로 향하도록 놓여 있다. 식탁은 녹색 식탁보로 덮여 있다. 우측 무대 앞쪽 중앙에 녹색 덮개장식을 한 다소 낮은 팔걸이의자가 있다. (1-2)

The walls are painted green, the woodwork, white. [...] Its bare, green wall and white baseboard are all that can be seen of it. [...] In the center of the rear wall of the room is a window. It is shut. The white

sash curtains are pushed to right and left as far as they will go. The green shade is rolled up to the top. [...] In the center of the floor is a green rug, and in the center of this, a rectangular dining-room table, the long side facing front. It is covered with a green table-cloth. At the right front center is a rather shabby arm-chair upholstered in green.

녹색의 무게감은 전체적으로 엄숙한 분위기를 전한다. 동시에 간간히 강조되는 백색은 청결한 느낌을 부가한다. 그리고 두 색의 대비가 전달하는 집안의 최종적인 인상은 “결벽적으로 깔끔하게 정돈된 살림살이가 소박한 방”(a room scrupulously neat and clean and plainly furnished. 1)으로 요약되는 ‘절제’와 ‘경건함’이다.

한편, 주동인물 레이첼의 표정과 언행은 삶에 대한 낙관적 태도를 선명하게 드러내는데, 이는 러빙 부인과 뚜렷한 대비를 이루며 또 다른 층위의 집안 분위기를 더한다. 매사 신중하고 조심스런 부인의 모습이 살얼음판을 걷듯 불안했던 과거 삶의 행보와 현실의 무게를 전한다면, 레이첼은 특유의 “생기발랄함”(spirit of abounding life, health, joy, youth. 3)을 발산하며 미래에 대한 기대와 이상으로 부풀어 있다. 러빙 부인에게 삶은 “끔찍한”(so terrible) 현실이지만, 레이첼에게 삶은 “아름다운”(mostly beautiful) 공간이다(13). 일례로 러빙 부인이 대학을 나오고도 웨이터로 일하고 있는 이웃 청년의 이야기를 전하면서 흑인이 직면한 인종차별의 ‘현실’을 언급하자, 레이첼은 미국 국가의 한 소절을 언급하며 국가적 ‘이상’에 대한 낭만적 기대를 표출한다.

러빙 부인: 알다시피 흑인이라는 게 그에게 엄청난 장애 아니겠나. [...]
 레이첼: 단지 그가 흑인이기 때문이라뇨! (휴지). 우리는 학교에서 노래하는 걸요, “자유인의 땅, 용감한 사람들의 고향”이라구요. (8-9)

Mrs. Loving: You see he had the tremendous handicap of being colored. [...]

Rachel: Just because he is colored! (Pauses). We sing a song at school, I believe, about “The land of the free and the home of the brave.”

이처럼 극의 도입부에서 모녀는 삶을 대하는 입장 차이를 보이는데, 이는 앞서 언급한 색상 대비에 추가하여 또 다른 층위의 ‘현실과 이상’의 대비 구도를 보여준다. 그리고 현실과 이상의 대비 모티브는 무대 묘사를 통해 가시적으로 확인된다. 기실 극의 무대는 중앙의 식탁을 경계로 우측 러빙 부인의 공간과 좌측 레이첼의 공간으로 양분되는 구조를 가지며, 각각 재봉틀과 피아노로 표상되는 두 공간의 대치 형국은 두 인물이 체화하는 현실과 이상의 대비를 효과적으로 가시화한다.

무대 앞쪽 우측 벽에 또 다른 창이 있다. 커튼이 양쪽으로 걷혀 있고 녹색 차일이 일부 내려져 있다. [...] 창 앞쪽에는 덮개가 열리고 실이 걸려 있는 재봉틀이 있다. 하늘하늘한 백색 천이 재봉틀 위에 놓여 있다. 재봉틀 앞에 의자가 있고 재봉틀 왼쪽으로 녹색 천으로 덮은 작은 탁자가 있다. [...] 무대 앞쪽 좌측 벽에 직립형 피아노가 있고 그 앞에 의자가 놓여 있다. 피아노 상판 위에 악보가 정연하게 쌓여 있다. (1-2)

In the right wall near the front is another window. Here the sash curtains are drawn together and the green shade is partly lowered. [...] In front of this window is an open, threaded sewing-machine. Some frail, white fabric is lying upon it. There is a chair in front of the machine and at the machine's left a small table covered with a green cloth. [...] Against the front end of the left wall is an upright piano with a stool in front of it. On top is music neatly piled.

재봉틀이 위치하는 무대 우측은 러빙 부인의 작업 공간이다. 덮개가 열리고 실이 걸린 재봉틀은 현재 그녀가 작업 중에 있음을 나타내며, 이는 생계와 노동의 현실을 표상한다. 부인의 얼굴에는 수심이 가득한데, “골무를 뺐다 껴다”(takes off her thimble... puts thimble on again, 2)하고

연신 시계를 쳐다보며 일에 집중하지 못하는 모습은 부인의 불안한 심리를 표출한다. 부인의 공간은 예의 녹색과 백색의 대비가 뚜렷하며, 젖혀진 백색 커튼과 낮게 드리워진 녹색 차일로 인해 녹색의 무게감이 부각되는 점 역시 앞서 언급한 일가의 전반적인 분위기와 조응한다. 피아노가 위치하는 좌측 무대는 레이첼의 공간이다. 외출에서 돌아온 레이첼은 “밝게 상기된 얼굴로”(brighten, 9) 피아노에 앉아 친구에게서 빌려온 악보를 펼친다. 그녀가 “풍부한 감성을 담아”(with great expression, 9) 연주하며 노래하는 곡은 미국 여류 작곡가 제시 게이노(Jessie Gaynor, 1863-1921)의 동요 “꿈배”(Slumber Boat)다. 제목이 함의하듯, 이 노래는 현실의 삶과 동떨어진 꿈의 세계, 현실에 물들기 이전의 동심의 세계를 함의한다. 이처럼 러빙 부인의 공간과 레이첼의 공간은 거리적·의미적 대척점에서 현실과 이상의 대치 국면을 가시적·상징적으로 표상한다.

레이첼의 낙관적 태도는 특히 ‘모성’에 대한 동경으로 표출되는데, 이는 향후 극을 관통하고 추동하는 중심 화두로 부각된다. 레이첼은 이웃집 흑인 아이 지미(Jimmy)를 처음 본 순간 “저 애가 온전히 내 아이였으면”(I wish he were all mine, every bit of him! 5)이라 말하며 모성 본능을 드러낸다. 주목할 점은 레이첼이 욕망하는 모성이 ‘이상화된’(idealized) 모성이라는 것이다. 그녀의 모성이 지미 개인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며, “인종차별적 사랑도 아닌”(nor is that love race-blind, Bernstein 71) 점은 아래 모녀의 대화 내용에서 확인된다.

엄마, 이 세상의 모든 아기들을 늘 작은 아기인 채로 간직할 수 있다면 좋지 않을까요? 그러면 항상 작고 양증맞고 사랑스러운 아기들로 있을 수 있잖아요. 자랄 수 없으니, 나쁘게 될 일도 없을 테고 말이죠. 난 엄마들이 안됐어요. 아기들이 자라서 나쁘게 되는 걸 봐야 하니까요. (10)

Ma dear, wouldn't it be nice if we could keep all the babies in the world—always little babies? Then they'd be always little, and cunning,

and lovable; and they could never grow up, then, and—and—be bad.
I'm sorry for mothers, whose little babies—grow up—and—and—are
bad.

이어지는 대화에서 레이첼이 동경하는 모성의 명분과 의미가 보다 분명해진다. 그녀가 엄마가 되려는 것은 ‘아이’를 갖기 위함이며, 이는 이성 간 사랑 및 결혼과 출산 등 현실적·세속적·쾌락적 인간관계가 귀결하는 모성과 충위를 달리하는 ‘절대’ 모성을 함의한다. 레이첼은 자신의 모성이 ‘신의 계시’에서 비롯된 것임을 피력하고, 이 경험을 ‘동정녀’ 마리아의 ‘수태고지’(Annunciation)와 동일시한다. 주목할 것은 그녀가 모성을 구현할 대상으로 ‘흑인 아기들’을 특정하고 있는 점이다. 한편 레이첼은 흑인 아기들을 위협으로부터 보호해야 할 필요성을 직감하지만, 위협의 실체와 원인에 대해서는 정작 무지하다. 이는 그녀가 당대 흑인 사회가 직면한 현실에 대한 비판적 인식이 수반되지 않은 채, 모성을 막연히 동경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꿈속에서 어떤 목소리가 내게 말했어요. 아! 정말 생생했죠. “레이첼, 너는 어린 아이들의 엄마가 될 지어다.” [...] 마리아가 어떻게 ‘수태고지’를 인지했는지 알게 되었죠. (거의 속삭이듯) 신이 누군가를 통해 내게 말씀하셨던 거죠, 난 확신해요. 그리고 나에게 많은 걸 설명해 주었어요. 내가 왜 아이만 보면 어쩔 줄 몰라 하는지 그 이유를 이제 알아요. 나는 돌보고 씻기고 입히며, 아이를 위해 살고 싶어요. [...] 나는 검은색과 갈색 피부의 아기들이 제일 좋아요. [...] 다른 어떤 아기들보다, 나는 그 애들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을 느껴요. 그 애들은 위험에 처해 있어요. 무엇 때문에! 그건 몰라요. 알아내려고 정말 애써보았지만, 알 수가 없어요. (12-13)

Once I dreamed, and a voice said to me—oh! it was so real—“Rachel, you are to be a mother to little children.” [...] Ever since I have known how Mary felt the ‘Annunciation.’ (*Almost in a whisper*) God

spoke to me through someone, and I believe. And it has explained so much to me. I know now why I just can't resist any child. I want to take care of it, wash it, dress it, live for it. [...] I love the little black and brown babies best of all. [...] More than the other babies, I feel that I must protect them. They're in danger, but from what! I don't know. I've tried so hard to understand, but I can't.

러빙 일가의 실내에서 눈에 띄는 물건으로 벽에 걸린 세 점의 그림이 있다. 이들은 앞서 언급한 색상 대비, 공간 구획과 더불어 집안의 가풍과 분위기를 상징적·가시적으로 표상하는 장치로 기능한다. 첫 번째 그림은 무대 뒷벽에 걸린 프랑스 화가 밀레(Jean-François Millet, 1814-1875)의 《추수하는 사람들》(*The Reapers*, 1853)로 “수수한 액자에 담겨”(a simply framed, 1) 사실주의 화풍으로 묘사되는 소박한 농민의 삶은 러빙 집안을 감도는 절제와 경건함을 전달한다. 두 번째 그림은 좌측 벽 중앙의 벽난로 위에 걸린 영국 화가 번-존스(Edward Burne-Jones, 1833-1898)의 《황금 계단》(*Golden Stairs*, 1880)으로, 악기를 들고 나선형 계단을 내려오는 흰 옷차림의 여성들은 “꿈길을 지나가는 영혼들”(troops past like spirits in an enchanted dream, Wood 88)을 상징한다. 세 번째 그림은 좌측 벽 피아노 위에 걸린 이탈리아 르네상스 화가 라파엘(Raphael, 1483-1502)의 종교화 《시스틴 마돈나》(*Sistine Madonna*, 1512)로, 아기예수를 안고 있는 마리아의 모습을 형상화한다. 세 그림은 서로 병치됨으로써 일상·현실·삶에서 꿈의 관문을 거쳐 신·이상·종교의 영역으로 순차적으로 나아가는 방향성을 보이며, 결과적으로 러빙 일가에 충만한 절제와 경건함의 분위기를 종교적 엄숙함의 경지로까지 끌어올리는 효과를 발한다.

창과 방문 사이에 책으로 가득한 책장이 있고, 책장 위쪽으로 밀레의 《추수하는 사람들》 싸구려 복사본이 장식 없는 수수한 액자에 끼워져

벽에 걸려 있다. [...] 무대 좌측 벽의 중앙에 벽난로가 있다 [...] 벽난로 선반 위에 좁고 긴 거울이 놓여 있고, 그 위쪽으로 번-존스의 《황금 계단》이 장식 없는 수수한 액자에 끼워져 벽에 걸려 있다. [...] 피아노 위쪽으로 라파엘의 《시스틴 마돈나》가 걸려 있다. (1-2)

Between the window and the door is a bookcase full of books and above it, hanging on the wall, a simply framed, inexpensive copy of Millet's "The Reapers." [...] In the center of the left wall is a fireplace [...] Over the mantel is a narrow mirror; and over this, hanging on the wall, Burne-Jones's "Golden Stairs," simply framed. [...] Hanging over the piano is Raphael's "Sistine Madonna."

특히 주목할 것은 세 번째 그림으로, 아기예수를 안고 있는 마리아는 ‘절대’ 모성을 표상한다. 레이첼 스스로가 신으로부터 수태고지 계시를 받았다고 믿으면서 자신을 동정녀 마리아와 동일시하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 그림은 이상화된 모성에 대한 레이첼의 욕망을 투사하는 상징물이 된다. 이 그림이 레이첼의 공간, 구체적으로는 그녀의 피아노 위에 위치하도록 설정된 점은 상기한 해석 가능성에 힘을 더한다.

III. 현실의 모성: 린칭 체험과 인식 변화

1막에서 가장 주목할 사건은 러빙 부인의 과거 고백이다. 저녁 식사를 마친 자리에서 러빙 부인은 오랜 세월 가슴에 묻어두었던 비밀을 자식들에게 털어놓는다. 자녀들의 아버지인 러빙 씨(Mr. Loving)와 이복형제 조지(George)가 십년 전 오늘 백인들의 린칭으로 사망했다는 것이다. 남부에서 신문을 발행하던 러빙 씨는 백인의 폭력에 무고하게 살해된 흑인의 사연을 고발하는 기사를 게재하게 된다. 이에 대한 보복으로 러빙 씨와 당시 열 살이었던 그의 어린 아들이 백인의 린칭으로 죽음

을 당하고, 러빙 부인은 갓난아이였던 톰과 레이첼을 데리고 북부로 탈출해 오늘에 이르게 된 것이다. 부인의 기억을 통해 폭로된 이 사건은 부당한 인종 차별의 폐해라는 표면적 갈등의 이면을 관통하는 ‘종교적 위선’을 폭로한다는 점에서 더 충격적이다.

너희들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니? [...] 1월 16일이었지. [...] 십 년 전... 오늘... 너의 아버지와 이복형이 죽었다. [...] 둘... 모두... 린치를 당했지!!! [...] 그랬다... 기독교인들의 손에... 기독교의 땅에서. 우린 나중에 알게 되었지. 그들 모두가 명망 높은 교회 신도들... 가장 모범적인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을. (침묵) 너희 아버지는 그들과 한 동료였는데 말이야. (22-23)

Do you know what day is this? [...] It's the sixteenth of October. [...] Ten years ago—today—you father and your half-brother died. [...] They—they—were lynched!!! [...] Yes—by the Christian people—in a Christian land. We found out afterwards they were all church members in good standing—the best people. (A silence). Your father was a man among them.

부인의 고백은 레이첼이 현실에 대한 중대한 인식 변화에 이르게 하는 계기가 된다. 어머니의 기억을 통해 레이첼은 흑인 린칭의 진실을 간접 체험하게 되고, 이것이 과거만의 문제가 아니라 현실에서도 가능할 수 있다는 인식에 도달한다. 이 과정에서 한 개인의 과거사에 대한 레이첼의 인식이 보편적 인간 문제에 대한 통찰로 확장된다. 과거 린칭으로 살해당한 이복오빠 조지가 그랬던 것처럼 십 년이 지난 지금에도 또 다른 수많은 조지들이 양산되고 있으며, 그녀가 사랑하는 지미 역시 이러한 비극적 운명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다. 레이첼은 삶에 대한 낭만적 낙관의 사각지대에 엄연히 존재해 왔던 냉혹한 현실을 비로소 깨닫게 된다.

만약 지미가 남부에 가서... 자란다면... 그 아이 역시... 조지가 되겠죠? [...] 그렇다면 남부에는 언젠가... 조지가 될... 수십, 수백, 수천의 아이들이 가득하겠죠?. [...] 그리고 아기들 오늘 지금 순간에 태어나고 있는 사랑스럽고 작고 힘없는 이 아기들, 내일 태어날 아기들, 그리고 미래에 태어날 아기들이 조만간 조지가 되겠죠? (27-28)

If Jimmy went South now—and grew up—he might be—a George? [...] Then, the South is full of tens, hundreds, thousands of little boys, who, one day may be—Georges? [...] And the little babies, the dear, little, helpless babies, being born today—now—and those who will be, tomorrow, and all the tomorrows to come—have that sooner or later to look forward to?

레이첼의 현실 인식은 종교의 위선에 대한 인식으로 확장된다. 즉, 사랑의 실천이라는 종교적 믿음에 기초하여 인간의 자유와 평등을 기치로 내걸며 건국한 ‘백인 기독교의 나라’ 미국에서 정작 인간에 대한 폭력이 자행되고 묵인되어 왔던 것이다. 백인의 린칭으로 인한 죽음의 악순환을 원천봉쇄하는 길은 아기를 출산하지 않는 것이며, 이런 이유에서 레이첼은 갓 태어난 아기의 숨을 그 자리에서 끊어주는 게 ‘이 나라’의 엄마가 할 수 있는 ‘자비로운’(merciful) 선택이라고 말한다.

남부 도처에 어디에나 공포, 끔찍하고 숨 막히는 공포 속에 살아가는 수백만 흑인 엄마들이 있어요. 밤에는 안식을 이루지 못하고, 낮에는 아기를 가슴에 껴안은 기쁨이 세 갈래 고통이지요. [...] 얼마나 끔찍해요! 차라리.. 그 어린 것들을 태어날 때 질식시키는 게... 그제 더 자비롭지 않을까요. 결국 이 나라... 이 백인 기독교 나라는 것처럼 아름다운...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모성을 고의적으로 저주해온 거죠! 그래서 엄마는 신을 의심하는 거죠! [...] 그건, 엄마가 알잖아요. 엄마였으니까, 조지의 엄마였으니까. 바로 그거잖아요. (28)

Then, everywhere, everywhere, throughout the South, there are hundreds of dark mothers who live in fear, terrible, suffocating fear, whose rest by night is broken, and whose joy by day in their babies on their hearts is three parts—pain. [...] How terrible! Why—it would be more merciful—to strangle the little things at birth. And so this nation—this white Christian nation—has deliberately set its curse upon the most beautiful—the most holy thing in life—motherhood! Why—it—makes—you doubt—God! [...] Why, Ma dear, you know. You were a mother, George’s mother. So this is what it means.

주목할 점은 종교의 위선에 대한 레이첼의 인식이 다시 현실의 모성에 대한 통찰로 이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통합적 인식의 끝에 레이첼은 ‘자식 잃은’ 혹은 ‘모성을 빼앗긴’ 엄마로 살아야 했던 러빙 부인에 대한 공감과 이해에 도달한다는 것이다. 러빙 부인은 남편과 아들이 동료 신도들에게 죽음을 당한 것을 계기로 “그 후로 오랫동안 기도를 하지 않았고 할 수도 없었다”(I would not pray—couldn’t for a long time—afterwards. 25)고 진술한다. 이는 종교의 위선으로 인한 배신감, 신에 대한 원망과 의심으로 점철되었을 세월, 신앙이 결여된 삶 등 지난 십 년간의 부인의 행적을 방증한다. 그리고 레이첼은 어머니가 감내했던 고통과 결여의 삶이 모성의 상실에서 비롯되었다는 깨달음에 이른다.

이처럼 1막에서 레이첼은 어머니와의 린칭 체험 공유를 통해 가치가 전복된 모성의 현실에 눈뜨게 된다. 러빙 부인에게 린칭 체험은 인종이 종교 위에 군림하는 현실을 깨닫는 계기가 된다면, 레이첼에게 린칭 체험은 인종과 종교에 의해 모성이 유린당하는 현실을 깨닫는 계기가 된다. 레이첼이 동경하는 ‘아름답고 거룩한’ 모성은 인종과 종교 등 인간이 만들어낸 그 어떤 관념적 가치들에 우선하는 자연법(natural law)이자 절대적 가치이다. 이제 그녀는 ‘백인 기독교의 나라’에서 인종과 종교에 의해 모성의 위치가 전복되고 저주받는 현실을 목도한다.

2막은 4년의 시간이 흐른 시점이며, 그 사이 러빙 일가에 변화가 발

생한다. 이웃 아이 지미가 갑작스런 부모의 죽음으로 고아가 되면서 러빙 집안에 들어와 살게 된 것이다. 지미가 가족의 일원이 됨으로써 가장 큰 변화를 겪는 것은 러빙 부인이다. 그녀는 지미를 십 년 전 사망한 아들 조지를 대신해 신이 주신 선물로 받아들인다. 지미를 조지와 동일시함으로써 러빙 부인은 잃었던 모성과 신앙을 회복하는 치유의 과정을 겪는다. 다시 ‘어머니’가 된 그녀에게 신의 섭리와 세상은 다시금 ‘아름다운’ 것이 되며, 이는 극 초반 린칭 사실에 대해 무지하던 레이첼의 모습을 연상케 한다.

아마도... 신께서 나를 가엾게 여기시고... 내 아들 조지를 돌려주시고 모양이구나. [...] 신의 섭리는 참으로 묘하고 때론 정말 아름답지. 우리가 이해만 한다면, 모든게 아름다울 거야. (35)

I wonder—if, perhaps, God—hasn’t relented a little—and given me back my boy,—my George. [...] God’s ways are strange and often very beautiful; perhaps all would be beautiful—if we only understood.

시간의 공백만큼 러빙 일가의 실내 모습에도 변화가 발견된다. 특히 러빙 부인의 심리적 회복을 대변하듯 “눈에 띄게 개선된”(have been evident improvement made) 실내는 “안락한”(cosier) 분위기로 사뭇 달라져 있다 (31). 1막의 경우 녹색 차일과 백색 커튼이 간단히 조합된 소박한 형태였다면, 2막은 “산뜻한 백색 점박이 속 거튼”(fresh white dotted Swiss inner curtain, 31)에 “녹색 데님 커튼”(green denim drapery curtain, 31)을 덧대어 구색을 갖춘 형태로, 동일한 색상 조합이지만 한층 밝고 산뜻해진 느낌이다. 아울러 창가 앞 선반마다 빨간 제라늄 화분(potted red geranium, 31)이 높여져 생기가 넘치는 실내 분위기를 연출하는데, 이는 1막에서 꽃 없이 텅 빈 채로 있던 녹색과 백색 화분들과 대조를 이룬다.

레이첼의 경우 지미와 같은 집에 살게 되면서 외견상 꿈에 그리던 모

성을 충족한 듯이 보인다. 그러나 레이첼이 이상적 모성에 대한 욕망과 기대를 ‘이미’ 훼손당한 후임을 감안할 때, 현재 지미를 향한 그녀의 모성은 현실의 층위로 내려온 모성, 즉 플라톤적 개념을 빌리면 이데아로부터 굴절된 가변적·감각적·세속적 ‘형상’(appearance)으로서의 모성으로 이해된다. 이러한 정황은 실내에 새로 걸린 그림을 통해 확인된다. 1막의 무대 뒷벽을 장식했던 《추수하는 사람들》 대신 동일 화가의 《괘이에 기댄 남자》(*The Man with the Hoe*, 1862)가 같은 자리에 걸려있다. 《추수하는 사람들》이 묘사하는 노동 현장의 활력과 가을이라는 계절적 배경은 희망, 풍요, 결실 등 일련의 긍정적 함의와 상징성을 표출한다. 반면 《괘이에 기댄 남자》는 가을걷이가 끝난 밭의 잡초를 제거하느라 힘겨워 하는 농민의 모습을 묘사한다. 황량한 밭의 전경, 겨울 초입의 을씨년스러움, 멍한 시선으로 쟁기에 기댄 노동자의 얼굴에서 노동과 삶의 무게가 묻어난다. 한결 산뜻해진 집안 분위기와 대조를 이루는 그림은, 모성에 대한 현실적 인식에 도달한 이후 변화된 레이첼의 심경 변화를 가시화하는 표상이 된다. 1막에서 무대 좌측 피아노가 놓인 레이첼의 공간을 장식했던 《황금 계단》과 《시스틴 마돈나》가 현재는 제거된 채 텅 빈 벽만 덩그러니 남아 있는 상황 역시 ‘추수 후 황량한 밭밭’과 다름없을 레이첼의 심경을 표상한다.

한편, 재봉틀이 놓인 무대 우측 러빙 부인의 공간 벽에 영국 화가 왓츠(*George Frederick Watts*, 1817-1904)의 《희망》(*Hope*, 1886)이 새로 걸렸는데, 이는 1막에서 텅 빈 벽이었던 것과 대비를 이루며 부인의 변화된 상황을 표상한다. 상징주의 화풍의 이 그림은 눈가리개를 한 채 구름이 드리워진 지구에 홀로 앉아 한 줄만 남은 칠현금을 연주하는 여성을 묘사한다. 여인의 형상과 이를 에워싼 침울한 색감과 분위기는 ‘희망’이라는 제목과 어울리지 않아 보이나, 오히려 그로 인해 한 줄의 현으로 상징되는 ‘실낱같은’ 희망의 의미가 효과적으로 부각된다. 즉 그림의 내용은 가족을 상실한 아픔, 종교와 신에 대한 배신감 등 모든 상처를 오랜

세월 홀로 가슴에 묻기 위해 부인이 감내했을 번민의 깊이를 투사하는 한편, 과거 진실을 자식들에게 속죄하듯 고백하고 나서 부인이 되찾게 된 마음의 안식과 종교적 믿음을 함께 전한다.

전체적으로 2막의 무대는 1막에서 설정된 모녀의 공간 의미가 역전된 형국을 제시한다. 1막의 경우 피아노를 중심으로 하는 레이첼의 공간이 삶과 이상적 모성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상징하는 반면, 재봉틀을 중심으로 하는 러빙 부인의 공간은 모성과 신앙의 결여 및 그로 인한 현실의 무게와 상실감을 상징한다. 반면 2막에서는 현실의 무게로 내려앉은 레이첼의 공간과 모성과 신앙의 회복으로 희망의 빛이 들기 시작한 러빙 부인의 공간이 대비된다. 이와 관련하여 러빙 부인의 공간에 새로 걸린 와츠의 《희망》은 모티브와 기법 면에서 동시대 화가 번-존스의 《달의 여신》(*Luna*, 1870)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Tromans 13). 1막 레이첼의 공간에 걸려 있다가 2막에서 사라진 《황금 계단》의 화가가 다름 아닌 번-존스임을 감안할 때, 두 그림의 상관성은 우연의 일치라기보다 모녀의 ‘공간 의미 역전’ 구도를 염두한 작가 그림케의 의도된 장치로 해석 가능하다.

2막에서 주목할 사건은 라인 부인(Mrs. Lane)과 그녀의 딸 에텔(Ethel)의 방문이다. 라인 부인은 에텔이 학교에서 경험한 이야기를 전한다. 특히 수업 시간에 있었던 에텔의 ‘눈 먼 강아지’ 발언 내용은, 천진난만해야 할 이 아이의 잠재의식이 인종적 트라우마로 이미 상처받고 잠식당하였음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매우 충격적이다.

아이들은 에텔은 잊은 채 저희들끼리 애완동물 이야기로 신나 있었죠. 그때 선생이 에텔을 향해 통명스레 물었죠. “넌 애완동물 있어?” 에텔은 작은 소리로 “네” 하고 대답했어요. “그럼 말해봐, 빼짐야, 그게 뭔데?” 에텔이 말했어요. “눈먼 강아지요.” 선생과 아이들 모두 웃음이 터졌죠. [...] 에텔이 소리를 높였어요. “눈먼 강아지를 비웃는 건 나빠요. 난 강아지가 눈이 먼 게 기뻐요.” [...] 의아한 선생은 물었죠. “왜 기쁜

데?” 에텔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휴지). 내가 이유를 물었을 때, 그 애가 나에게 뭐라고 한 줄 알아요? “강아지가 나를 보면 더 이상 날 사랑하지 않을까봐서.” (휴지) 이게 일곱 살짜리 입에서 나올 말인가요? (56)

The children forgot Ethel in the excitement of talking about their pets. Presently, the teacher turned to Ethel and said disagreeably: “Have you a pet?” Ethel said, “Yes,” very low. “Come, speak up, you sulky child, what is it?” Ethel said: “A blind puppy.” They all laughed, the teacher and all. [...] She spoke up: “It’s mean to laugh at a little blind puppy. I’m glad he’s blind.” [...] “Why are you glad,” the teacher asked curiously. Ethel refused to say. (*Pauses*). When I asked her why, do you know what she told me? “If he saw me, he might not love me any more.” (*A pause*). Did I tell you that Ethel is only seven years old?

이후 에텔은 교사가 묵인하는 가운데 급우들에게 손찌검을 당하고 “검둥이”(Nigger, 57)라 불리며 따돌림을 당한다. 결국 아이를 학교에 보내지 않기로 결심한 부인은, 인종을 차별하는 “이런 교육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다”(it’s all rather useless—this education! 58) 강변한다. 이어 부인은 에텔이 백인 주일학교에서도 인종차별을 당한 사실을 폭로하면서 “신을 섬기는 교회의 실상”(That’s your Church of God! 58)에 대한 극도의 실망감을 표출한다. 이는 십 년 전 레이첼의 아버지와 이복오빠가 백인 신도들에게 당했던 부당한 처사 및 러빙 부인이 신을 부인하게 된 일련의 과정을 상기시키는 동시에, 이러한 행태가 과거 남부에서만 아니라 현재의 “북부에서도”(even in the North) 자행되는 현실의 문제임을 말해준다(Perkins 8). 래리 부인은 자식들이 이렇게 부당한 사회에서 살게 할 수 없다면서, 만일 아이를 또 임신하게 된다면 낳아 키우기보다 “죽이는 것이 더 친절한 일일 것”(I’d kill it. It’s kinder. 58)이라 말한다. 부인은 미혼인 레이첼에게 “결혼하지 말라”(Don’t marry, 58)라는

마지막 당부를 남기고 떠난다.

1막에서 레이첼이 어머니의 기억을 통해 과거의 린칭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다면, 라인 부인과의 대화는 레이첼이 린칭을 작금의 현실로 확인하는 계기가 된다. 아울러, 린칭의 현실을 확인한 레이첼은 모성에 대한 더욱 참담한 인식에 도달하게 된다. 1막에서 그녀가 어머니에게 언급했던 ‘자비로운 살인’이 래리 부인의 ‘친절한 살인’이라는 말로 반복되는 것은, 이러한 인식이 비단 레이첼 뿐만 아니라 현실의 모든 엄마들이 공유하는 보편적 생각임을 말해준다. 아울러 현실의 엄마가 전하는 ‘결혼하지 말라’는 조언은 레이첼에게 실낱같이 남은 모성에 대한 미련마저 무산시킨다.

IV. 모성의 포기: 친절한 살인

라인 부인이 떠난 직후 레이첼을 연모하는 이웃집 청년 존(John Strong)이 보낸 장미 꽃다발이 집으로 배달된다. 레이첼이 직전의 면담으로 인한 충격과 꽃 선물로 인한 로맨틱한 감정의 교차로 혼란스러워하는 가운데 지미가 학교에서 돌아온다. 지미는 물병에 옮겨진 꽃들을 보고 느닷없는 질문을 던진다. 주목할 점은 어린 지미의 입에서 직전에 라인 부인이 말한 ‘친절한 살인’이 다시금 언급되고 있는 점이다.

장미봉오리들은 마치 “아이들” 같아, 안 그래, 레이첼? 잘 보살펴 주면 저 아이들은 사랑스런 장미로 자랄 거야, 그치? 그리고 아프게 하면 저 아이들은 죽을 테고. 레이첼, 모든 사람들이 어린 장미봉오리들에게 친절하다고 생각해? [...] 아프게 할 거라면, 저 아이들을 한 번에 죽이는 게 더 친절한 일이 아닐까. 조금씩 조금씩 아프게 하지 말고. (60-61)

Rosebuds are just like little “chilyun,” aren’t they, Ma Rachel? If you are good to them, they’ll grow up into lovely roses, won’t they? And if your hurt them, they’ll die. Ma Rachel do you think all people are

kind to little rosebuds? [...] If you hurt them, it would be lots kinder, wouldn't it, to kill them all at once, and not a little bit and a little bit?

지미의 말은 에텔의 경우처럼 ‘일곱 살짜리 입에서 나올 말’이 아니며, 이는 지미가 에텔처럼 인종적 편견의 독에 “침해당한”(poisoned, 62) 상황에 있음을, 또한 그가 에텔처럼 인종차별적 폭력을 경험했을 가능성을 암시한다. 예상대로, 지미는 학교에서 백인 아이들에게 ‘검둥이’라 놀림 받고 돌팔매를 당한 이야기를 털어 놓는다. 이 순간 레이첼에게 린칭은 기억과 전언을 통해 알게 되는 과거의 일 혹은 남의 일이 아니라 현재 자신의 문제가 된다. 아울러 가슴으로 낳은 아들에게서 ‘친절한 살인’ 요청을 받은 이상, 레이첼이 염원하는 모성은 치명적 존재 위기와 직면한다. 레이첼은 이상으로부터 멀어졌지만 지미를 양육하면서 실낱같이 지켜온 모성에 대한 염원과 이별을 선언하며, 이는 신에 대한 믿음을 거부하는 극단적 형국으로 치닫는다.

가장 아름다운 일이 나에게 발생했죠. 꿈에서 들었던 그 아름다운 목소리, 그 아름다운 말들: “레이첼, 너는 어린 아이들의 어머니가 될 지어다.” [...] 신이여, 왜 당신은 나를 조롱하고 있었나요. 당신은 왜 나를 비웃고 있었나요. [...] 날 조롱하는 끔찍한 신이여! 잘 들으세요! 난 맹세해요. 만일 내가 이 맹세를 깬다면 내 영혼을 영원토록 저주하세요. 맹세컨대, 내가 낳은 아이를 내 가슴에 뉘일 일은 결코 없어요. 그래서 그 아이가 자라 이 끔찍한 세상과 마주하고서 날 원망할 일은 결코 없어요. (62-63)

The loveliest thing—almost, that ever happened to me, that beautiful voice, in my dream, those beautiful words: “Rachel, you are to be the mother to little children.” [...] Why, God, you were making a mock of me; you were laughing at me. [...] You terrible, laughing God! Listen! I swear—and may my soul be damned to all eternity, if I do break

this oath—I swear—that no child of mine shall ever lie upon my breast,
for I will not have it rise up, in the terrible days that are to be—and
call me cursed.

레이첼이 모성과 신에 대한 믿음을 의심하게 되는 과정은 십 년 전 남편과 자식을 잃고 신을 부정했던 러빙 부인의 경우와 꼭 닮아 있다. 기실 이 점은 모성과 신앙에 대한 극단적 불신을 촉발하는 계기가 되는 라인 부인과의 면담 직후 레이첼의 모습에서 이미 예견된다. 라인 부인이 떠난 후, 레이첼은 긴 한숨을 쉬며 러빙 부인의 재봉틀로 다가가 앉아 일하기 시작한다. 레이첼은 무언가에 홀린 듯 페달을 밟고 멈추기를 반복하며 불안한 행동거지를 보이는데, 레이첼의 이러한 모습은 1막 초반부에서 과거의 상처를 고백하기 전 신앙과 모성을 상실한 상태의 러빙 부인의 모습과 교차되는 것이다.

인간의 고통을 보고 “신은 비웃고”(You can laugh, Oh God!) 있지만, 레이첼은 “자신이 신보다 친절할 수 있다”(I can be kinder than You. 63)고 말한다. 레이첼은 신의 무책임을 조롱하듯 광적인 웃음을 터뜨리며 존이 보낸 꽃다발을 낚아채 꽃봉오리들을 모조리 뜯어 발로 밟아 짓이긴다. 이어 그녀는 “전능하신 신이시여, 나는 한번에 죽입니다, 난 고통을 주지 않아요”(If I kill, You Mighty God, I kill at once—I do not torture. 63)라는 말을 신에게 보란 듯이 내뱉는다. 자신의 피조물인 인간에게 끝없는 고통을 주는 신의 무책임에 항거하여, 레이첼은 예정된 고통을 원천봉쇄하는 친절을 꽃봉오리들에게 베푸는 것이다. 이처럼 레이첼은 라인 부인의 조언을 통해 그리고 지미의 요청을 통해 제기되었던 ‘친절한 살인’을 꽃들을 향해 실천하며, 이는 향후 이어질 모성 포기에 대한 복선이 된다.

3막은 2막으로부터 일주일이 지난 시점이다. 모성과 신에 대한 믿음을 상실한 레이첼은 이후 극도의 불안장애와 조울증에 시달린다. 의욕

을 잃고 침실에 칩거하며 일체의 거동을 중지한 그녀는 흡사 “죽은 사람의 얼굴을 하고”(her face is like a dead woman's, 79) 있으며, 원인을 모르는 가족들은 그녀의 이상 증후를 지켜볼 뿐이다. 반면, 레이첼은 지미에 대한 강박적 집착을 보이면서 한시도 아이 곁에서 떨어지지 않으려 한다. 레이첼은 지미의 요청으로 ‘웃음의 땅’(the Land of Laughter)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한다.

마을의 동쪽 문으로 나가는 거야. 동이 막 뜨고 있을 때 말이지. 거기
에 고속도가 나오는데 그 길을 따라가는 거지. 오랫동안 먼 길을 따라
가다 보면, 웃음의 땅으로 들어가는 문에 도착하게 된단다. (70)

You go out of the eastern gate of the town, just as the sun is rising;
and you take the highway there, and follow it; and if you go with it
long enough, it will bring you to the very gates of the Land of
Laughter.

이어지는 이야기에는 재물의 땅(Land of Riches), 권력의 땅(Land of Power), 희생의 땅(Land of Sacrifice)이 차례로 등장한다. 이 모든 유혹들을 물리치고 계속 가다보면 최종 목적지인 웃음의 땅에 도착할 수 있고, 이곳에서 “사람들은 자라고 결혼해서 행복하게 웃는 아이들을 낳게”(they grew up here, and married, and had laughing, happy children. 73) 된다는 것이다. 흡사 존 번연(John Bunyan)의 『천로역정』(The Pilgrim's Progress, 1678)을 연상케 하는 이 이야기는 낙원에 이르는 힘겨운 여정을 우화(allegory) 형식으로 풀어낸다. 한편 번연의 소설에서 여정의 고난을 상쇄하는 목적지 도달의 기쁨에 방점이 주어진다 면, 레이첼의 이야기는 ‘웃음의 땅’을 현실에서 불가능한 이상향으로 제시함으로써 고난의 여정뿐인 현세의 비애감(pathos)이 부각된다. 이야기를 듣고 난 지미가 “나는 그 곳이 여기 있으면 좋겠어, 거기가 아니고”(I

wish it was here—not there. 73)라고 반응하는 데에서 현실과 이상 사이의 거리에서 오는 비애감이 재확인된다. 웃음의 땅은 꿈에서나 만나볼 수 있는 비현실적 공간인 것이다.

오늘 밤 꿈속에서 웃음의 땅에 갈 수 있을 것 같기도 해. “꿈 배”를 타고 가볼 테야. 그리고 아침에 돌아오면 그곳에 대해서 내가 다 말해 줄게. 알았지? (75)

I think that p'r'aps I'll go to the Land of Laughter tonight in my dreams. I'll go in the “Slumber Boat” and come back in the morning and tell you all about it. Shall I?

레이첼이 지미를 침실로 데리고 간 사이, 존이 일가를 방문한다. 그는 러빙 부인으로부터 지난 일주일 동안 레이첼이 보인 이상 행동—존이 보낸 꽃들을 훼손하고, 극심한 조울증과 히스테리를 보이며, 외부와의 접촉을 피해 칩거에 들어가는 등—에 대해 전해 듣는다. 이윽고 레이첼이 거실로 돌아오고, 존은 자신이 보낸 꽃을 훼손한 이유에 대해 묻는다. 그에 돌아온 것은 ‘친절한 살인’이라는 알 수 없는 답변이다.

스트롱: 레이첼, 꼬마 아가씨. 왜... 꽃들을 죽였지?

레이첼: (가쁘게 숨쉬며) 뭐랄까... 죽이는... 친절함... 이라면 믿겠어요?

스트롱: (잠시 후) 그것들을 죽인 게... 친절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레이첼: 네. (88)

Strong: Rachel, little girl, why—did you kill them?

Rachel: (*Breathing quickly*) Don't you believe—it—a—a kindness—something—to kill?

Strong: (*After a pause*) You—considered—it—a—kindness—to kill them?

Rachel: Yes.

레이첼이 말한 ‘친절한 살인’의 의미를 헤아리지 못한 채, 존은 그동안 마음에 품었던 청혼의 뜻을 밝힌다. 그는 자신이 마련해 놓은 신혼집과 그가 꿈꾸는 행복한 미래에 대해 언급한 후 레이첼의 수락 여부를 묻는다. 레이첼은 그간 자신에게 발생한 일들—모성에 대한 꿈, 지미의 린칭, 모성에 대한 회의—에 대해 털어놓고, 청혼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답변한다.

존... 당신이 잘 알잖아요... 어떤 것도 항상 아름다울 수 없다는 걸... 당신이 내게 말했잖아요. (생각에 잠겼다가) 그렇죠, 절대 그런 법은 없어요. (스트롱이 그녀에게 다가온다.) 안 돼요... 존... 제발... 나를 더 이상... 만지지 말아야 해요. (휴지) 이걸... ‘작별 인사’예요. (94-95)

John—you—see—it can never be—all the beautiful, beautiful things—you have—told me about. (*Wistfully*) No—they—can never be—now. (Strong comes toward her) No,—John dear,—you—must not—touch me—any more. (*Pauses*). Dear, this—is—“Good-bye.”

존이 떠난 뒤, 레이첼은 홀로 남는다. 레이첼은 결혼을 거부하고 ‘독신’의 길을 선택함으로써 모성의 가장 신성한 행위인 출산의 기회를 포기한다. 그리고 자신의 이 ‘친절한 살인’으로 인해 세상의 빛을 보지 못한 아이들을 향해 마지막 진술을 남긴다.

그리고 내 아이들아 [...] 난 결코... 너희를... 볼 수 없단다. 네 작은 갈색의 아름다운 몸을... 난 결코 볼 수 없겠지... 하지만 네 보조개... 네 웃음... 네 눈물... 너의 그 아름답고 사랑스런 촉감이 여기에 있단다. (손을 그녀의 가슴에 가져간다.) 결코 볼 수 없겠지. (잠시 후 걱정적으로) 하지만 너는 어딘가에 있어.... 그리고 어디에 있든 넌 내 아이란다! 넌 내 아이야! 네 모든 것! 너의 모든 것이! 신도 널 데려갈 수 없어. [...] 내 아기들아!... 이제 울면서 나에게 다가올 필요도 없지. 넌 이제 행복하고... 안전하니까. (96)

And my children! [...] I shall never—see—you—now. Your little, brown, beautiful bodies—I shall never see.—Your dimples—everywhere—your laughter—your tears—the beautiful, lovely feel of you here. (*Put her hands against her heart.*) Never—never—to be. (*A pause, fiercely*) But you are somewhere—and wherever you are you are mine! You are mine! All of you! Every bit of you! Even God can't take away. [...] My little children!—No more need you come to me—weeping—weeping. You may be happy now—you are safe.

아이들의 아름다운 모습들은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그들은 그녀의 마음속에 안식하며 현실의 위험으로부터 영원한 안전을 보장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녀가 가슴에 묻은 아이들은 태어나지 않았으므로 죽음으로부터 자유로운, 때문에 신마저도 데려갈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주목할 것은 레이첼의 최종 진술에서 특정된 개체가 아니라 보편적 개체로서 ‘아이들’이 언급되고 있음이다. 이는 극 초반에 이복오빠 조지의 개인사에 대한 레이첼의 인식이 수많은 ‘조지’들로 대변되는 보편적 인간에 대한 통찰로 확장되는 것과 대구를 이룬다. 레이첼은 현실적·개인적 불모의 모성을 취함으로써 영원한 생명을 수태하는 이상적·보편적 모성을 구현하고자 하며, 이러한 선택을 통해 레이첼은 현실의 부침으로 추락해온 이상적 모성에 대한 열망을 끝까지 놓지 않으려는 힘겨운 사투를 벌인다.

윌리엄 스톰(William Storm)은 레이첼의 모성 포기 선택을 “행동”(action)이라기보다 “극도로 민감한 소녀”(highly-strung girl)의 “반응”(reaction)으로 해석하며(462), 스톰의 시각에 기대어 헨리 밀러(Henry D. Miller)는 레이첼을 인종이라는 억압적 환경에 적극적으로 저항하기보다 수동적으로 반응한다는 면에서 “영웅”(heroine)이 아닌 “희생자”(victim)로 분류한다(45). 그러나 레이첼은 분명 ‘행동’하고 ‘저항’한다. 그녀는 이상적 모성이 불가능한 현실에 순응하거나 굴복하기보다 이러한 현실에서 이상적 모성

을 실천하기 위한 방식으로 ‘친절한 살인’이라는 처절하고도 대담한 행동을 감행하는 것이다.

극 도입부에서 레이첼은 아기들을 영원히 아기인 채로 간직할 수 있는 이상적 모성을 꿈꾸었고, 이상적 모성이 불가능하다는 현실 인식에 도달하며, 중국에는 현실의 모성까지도 포기하는 과정을 밟는다. 그리고 극의 대단원에 이르러 레이첼은 현실의 아기를 죽임으로써 역설적으로 마음속에서 영생하는 아기를 잉태하게 된다. 결국 레이첼이 염원하던 이상적 모성은 현실의 층위로 내려갔다가 다시금 원래 자리로 돌아오는 형국이 된다. 레이첼은 아기들을 ‘죽임’으로써 이들이 죽음이라는 현실의 위협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어머니의 마음속에서 영생케 하는 ‘절대적’ 친절을 행하는 것이다. 죽임으로써 아이를 영생케 하는 역설, 이것이 레이첼이 아이들에게 베푼 ‘친절한 살인’의 의미이고 이유이다.

V. 결론

서론에서 잠시 언급했듯이 『레이첼』 초연 당시 흑인 사회는 주동인물 레이첼이 결혼 포기를 선택함으로써 흑인의 ‘인종 학살’(race genocide) 혹은 ‘인종적 자살’(racial suicide)을 비호한다며 비판했다. 이에 대해 그림케는 「레이첼: 이유와 개요」(“Rachel: The Reasons and Synopsis”)라는 제목의 해명 글을 통해 이 극이 백인 어머니들을 겨냥한 것이며, 그들로부터 흑인 어머니들이 처한 현실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끌어내기 위한 것이라는 집필 의도와 입장을 밝혔다. 이에 덧붙여 그림케는 이 극에서 전하고자 하는 것이 흑인 여성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피부색을 초월하는 모든 여성들의 보편적 모성에 대한 호소임을 분명히 했다.

『레이첼』이 인종적 자살을 설교한다는 세간의 이해에 대해, 나는 그것이 내 의도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반대로, 이 극은 흑인들이 아닌 백인들에 대한 호소입니다. [...] 그들이 마음 약해지는 것이 있다면, 그게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모성이라고 나는 믿었습니다. 여성들의 삶에 있어 고귀하고 훌륭하며 가장 신성한 모든 것들은 모성으로 수렴합니다. 피부색을 막론하고 모든 여성 자매들이 가질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모성입니다. 만일 이 나라의 백인 여성들이 도처의 흑인 어머니들과 장차 어머니가 될 여성들에 대한 자신들의 편견, 그리고 그들의 아버지, 남자형제, 남편, 아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을 보고, 느끼고, 이해할 수 있다면, 여론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힘이 발산될 것이며 결과적으로 이 전투가 절반의 승리를 거둘 것입니다. 이것이 주요 목적이었습니다. (“The Reason and Synopsis” 51-52)

Since I has been understood that “Rachel” preaches race suicide, I would emphasize that that was not my intention. To the contrary, the appeal is not primarily to the colored people, but to the whites. [...] Did they have a vulnerable point and, if so, what was it? I believed it to be motherhood. Certainly all the noblest, finest, most sacred things in their lives converge about this. If anything can make all women sisters underneath their skins it is motherhood. If, then, the white women of this country could see, feel, understand just what their prejudice and the prejudice of their fathers, brothers, husbands, sons were having on the souls of the colored mothers everywhere, and upon the mothers that are to be, a great power to affect public opinion would be set free and the battle would be half won. This was the main purpose.

과거 조지의 린칭 사실에 대한 레이첼의 인식은 현재의 조지들에 대한 통찰로 확장되고, 자식 잃은 어머니의 참담한 현실에 대한 그녀의 인식은 현실의 모든 엄마들의 모성에 대한 통찰로 확장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그림케는 당대 흑인 어머니들의 참담한 모성의 현실을 백인을 위시한 모든 어머니들이 경각심을 가져야 할 보편적 문제로 확장한다. 이러한 맥락을

감안할 때, 레이첼의 모성 포기는 피상적으로 ‘흑인’의 문제에 국한되며 결과적으로 ‘흑인’ 인종 학살 혹은 인종적 자살로 비추어질 수 있으나, 보다 깊은 층위에서 분명 인종을 초월한 보편적 모성에 대한 문제의식에 맞닿아 있다. 아울러, 레이첼의 모성 포기는 역설적으로 ‘이상적’ 모성 욕망을 표출하고 실천한다. 그녀는 이상적 모성이 불가능해진 현실에 순응하거나 굴복하기보다 오히려 이를 현실에서 실천하기 위한 절체절명의 저항을 감행한다. 아기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사하고, 현실적·개인적 불모의 모성을 이상적·보편적 영생의 모성으로 이끄는 역설의 결단, 이것이 ‘친절한 살인’이 함의하는 의미이다.

Works Cited

- Baker, Nancy Kovaleff. "Abel Meeropol (a.k.a. Lewis Allan): Political Commentator and Social Conscience." *American Music* 20.1 (Spring 2002): 25-79.
- Bernstein, Robin. "'Never Born': Angelina Weld Grimké's Rachel as Ironic Response to Topsy." *Journal of American Drama and Theatre* 19.2 (Spring 2007): 61-76.
- Brantly, Will. *Feminine Sense in Southern Memoir: Smith, Glasgow, Welty, Hellman, Porter, and Hurston*. Jackson: UP of Mississippi, 1993.
- Coss, Clare, ed. *Lillian D. Wald, Progressive Activist*. New York: Feminist Press, 1989.
- Davis, David A. "Not Only War Is Hell: World War I and African American Lynching Narratives." *African American Review* 42.3-4 (Fall/Winter 2008): 477-491.
- Fauset, Jessie. "Rachel." *The Crisis* 21.2 (December 1920): 64.
- Fleener, Nickie. "Answering Film with Film: The Hampton Epilogue, A Positive Alternative to the Negative Black Stereotypes Presented in *The Birth of a Nation*." *Journal of Popular Film and Television* 7.4 (1980): 400-425.
- Gladney, Margaret Rose. *How Am I to Be Heard? Letters of Lillian Smith*. Chapel Hill: U of North Carolina P, 1993.
- Grimké, Angelina Weld. *Rachel: A Play in Three Acts*. London: Forgotten Books, 2015.
- _____. "Rachel: The Reason and Synopsis by the Author." *Competitor* 1.1 (1920): 51-52.
- Hatch, James V. "Introduction: Two Hundred Years of Black and White Drama." *The Roots of African American Drama: An Anthology of Early Plays, 1858-1938*. Ed. Leo Hamalian and James V. Hatch. Detroit: Wayne State U, 1991. 15-41.
- Hester, Michelle. "An Examination of the Relationship Between Race and Gender in an Early Twentieth Century Drama: A Study of Angelina Weld Grimké's Play *Rachel*." *The Journal of Negro History* 79.2

- (1994): 248-256.
- Hull, Gloria T. *Color, Sex, and Poetry: Three Women Writers of the Harlem Renaissance*. Bloomington: Indiana UP, 1987.
- Jackson, Robert. "A Southern Sublimation: Lynching Film and the Reconstruction of American Memory." *The Southern Literary Journal* 40.2 (2008): 102-120.
- Kellogg, Charles Flint. *A History of The National Association for the Advancement of Colored People. Vol. 1: 1909-1920*. Baltimore: Johns Hopkins P, 1967.
- Locke, Alain, and Montgomery Gregory, eds. *Plays of Negro Life: A Source-Book of Native American Drama*. New York: Harper, 1927.
- McKay, "'What Were They Saying?': Black Women Playwrights of the Harlem Renaissance." *The Harlem Renaissance Re-examined*. Ed. Victor Kramer. New York: AMS, 1987. 129-48.
- Meier, Joyce. "The Refusal of Motherhood in African American Women's Theatre." *MELUS* 25.3/4 (Autumn-Winter 2000): 117-139.
- Miller, Henry D. *Theorizing Black Theatre: Art Versus Protest in Critical Writings, 1898-1965*. Jefferson: McFarland, 2011.
- Pendergast, Tom and Sara, eds. *St. James Encyclopedia of Popular Culture, Vol. 1*. Detroit: St. James Press, 2000.
- Perkins, Kathy A., and Judith L. Stephens, eds. *Strange Fruit: Plays on Lynching by American Women*. Bloomington: Indiana UP, 1998.
- Stephens, Judith L. "Anti-Lynch Plays by African American Women: Race, Gender, and Social Protest in American Drama." *African American Review* 26.2 (Summer 1992): 329-339.
- Storm, William. "Reactions of a 'Highly-Strung Girl': Psychology and Dramatic Representation in Angelina W. Grimké's *Rachel*." *African American Review* 27.3 (Autumn 1993): 461-471.
- Tromans, Nicholas. Hope: *The Life and Times of a Victorian Icon*. ComptonWatts Gallery, 2011.
- Williamson, Joel. *The Crucible of Race: Black-White Relations in the American South Since Emancipation*. New York: Oxford UP, 1984.
- Wood, Christopher. *Burne-Jones*. London: Phoenix Illustrated. 1997.

- 논문 투고일자: 2018. 05. 14
- 심사 완료일자: 2018. 06. 05
- 게재 확정일자: 2018. 06. 15

Abstract

**Kindness to Kill: Controversy and Paradox of
Abandoning Motherhood in *Rachel***

Jungman Park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Angelina Grimké's play *Rachel* (1916), deals with the story of a middle-class African American family in the 1900s. Rachel, a teenage girl in the play, recognizes brutal racism and physical violence against black children and eventually abandons her dream of marriage and becoming a mother to children. At the time of the premiere, Rachel's abandonment of her motherhood was criticized as preaching racial genocide by many black intellectuals of the day. This reaction was the result of interpreting the meaning of the theme from biasedly racial and political viewpoints. This study, distinguishing itself from the existing race analysis which regards this play as race propaganda, explores the meaning of the motherhood theme focusing on the implications of 'kindness to kill' that Rachel suggests as a reason to give up her motherhood. This paper argues that Rachel's abandonment of motherhood in reality paradoxically expresses and implements her desire for 'ideal' motherhood.

Key words

Rachel, Angelina Weld Grimké, motherhood, lynching, race, kindness to kill